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7, 2021 Vol. 784

## “미국의 영적 부흥, 한인교회 세우신 하나님 뜻 여기에”

2021 다민족 연합기도회  
10월 29일(금) 오후 7:30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오는 10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다민족연합기도회는 현장 기도회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비롯해 히스패닉, 백인, 흑인, 일본 등 타민족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해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다민족연합기도회 준비위원들은 동성애와 낙태, 사회주의 확산 등 미국의 영적 위기를 우려하고 “하나님을 강력히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금식하고 회개하며 부흥을 간구하길 원한다”면서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도회는 △미국의 교만, 역사 속의 죄, 생명 경시 사상, 인종 갈등



9월 30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2021년 다민족연합기도회 설명회 및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독일보

회개 △교회, 가정, 교육에서 청교도 신앙 회복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미국의 지도자들의 하나님 경외 △영적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 △전세계 다민족과 박해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100여 민

족이 더불어 사는 남가주에서 한인 교회가 앞장서서 매년 준비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며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되고 도덕적 성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시대에 한인교회가 앞장서서

다민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참석한 아주사스트리트미션 대표 프레드 베리 박사는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베리 박사는 “이제는 우리가 함

께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가족임을 확인해야 한다. 거룩한 연합을 통해 부흥이 임하게 된다”며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분열된 시기에 연합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1월 11일 파사데나 로즈볼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다민족기도회는 2014년부터는 남가주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도회를 이끌어왔다. 로즈볼 기도회는 총 3만 5천여 참석자 중 한인이 1만 2천여 명에 달했고 2014년 얼바인 베라이즌 야외극장에서 열렸던 기도회는 다민족 성도들과 함께 한인들도 5천여 명 넘게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는 청교도신앙회복운동이 주관하고 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은혜한인교회가 주최한다. 현장중계는 미주복음방송, CTS 아메리카, 은혜한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그렉 로리 목사 “미국의 마지막 영적 각성... Z세대 주목”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 미니스트리

전도 집회인 ‘SoCal Harvest’ 콘퍼런스 개최를 앞둔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Z세대에 관한 애정

을 드러냈다. 하비스트교회 하비스트크루세이드 설립자인 그렉 로리 목사는 최

### ‘SoCal Harvest 콘퍼런스’ 관련 인터뷰

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대가 있다. 대부분의 Z세대는 어떠한 종류의 영적·종교적 배경도 갖고 있지 않다”며 “모든 종류의 편견을 가진 이들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사역하고 싶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고 있다. 청년들은 의미를 찾고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주목받길 원한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삶은 중요하고, 주목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현재와 미래의 삶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로리 목사가 이끄는 하비스트크루세이드는 3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SoCal Harvest’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콘퍼런스는 무료이며 로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필 워컴, 킹엔컨트리 등이 찬양 인도를 맡았다.

매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A Rush of Hope’로 대체됐는데, 4백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5만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가 됐다.

로리 목사는 “미국에서 마지막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매우 놀란다. 저는 또 다른 영적 각성을 보고 싶고, 이 모음이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불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를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서는 미국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길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가장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적·기술적 또는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갈라프린트/갈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아버지 밥상교회 '홈리스 선교사 센터' 건립, 노숙자 재활 비전 가시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엘에이 다운타운 홈리스 300여 명을 먹이는 노숙자 단체 아버지밥상교회(대표 무디 고 목사)가 홈리스 재활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엘에이에서 차로 1시간 20여분 이면 갈 수 있는 랭캐스터 지역에 5에이커 땅을 한 장로부터 기증 받았다. 아직은 허허벌판과도 다름없는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홈리스 재활과 선교 훈련장의 비전으로 땅을 다지고 기도를 세우고 있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홈리스 선교사 센터'(가칭)에 예배당과 재활센터를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세속적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노숙자들이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땅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땅을 경작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노숙자 재활을 위해 5에이커의 땅을 기증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빌



아버지밥상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무디 고 목사(왼쪽)와 마리아 조 목사(오른쪽) ©기독일보

홈 한 동을 먼저 기증받았다. 봉사자들의 수고로 전기와 수도도 연결됐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당장 건물을 세우기 보다는 사람과 사역에 초점

을 맞춰 모빌 홈 여러 동에서 노숙자들을 돌보고 훈련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형제들 숙소로 사용할 모빌 홈 한 동, 자매 숙소로 사용할 모빌 홈 한 동, 주방과 식당으로 사용

할 모빌홈 한 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모빌 홈 한 동의 가격은 운반과 설치 비용까지 2만 달러로 건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무디 고牧사는 “노숙자들 가운데는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결단하지만 다운타운이라는 환경을 벗어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증 받은 땅에서 노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비닐하우스 농장과 양계장도 운영하면서 노숙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디 고 목사는 이어 “밤새도록 추위와 싸웠을 노숙자에게 매일 새벽마다 치킨 수프와 따뜻한 커피, 도넛을 먹이면서도 그들을 예수 제자로 일컫어 세워 복음 전파에 동원하길 간절히 기도해왔다”며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에 협력해 주실 분들을 간절히 기도하며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홈리스 선교사 센터'에서 노숙자 사역에 동참할 은퇴 선교사나 목회자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또 아버지 밥상교회 봉사나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전화 213-364-7289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故 김경일 목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위해 온 삶 드렸다”

행복찬교회를 담임하던 고 김경일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가 지난 4일, 엘에이 한국 장의사에서 진행됐다.

천국 환송예배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씬 없이 달리며, 복음을 증거하던 고인의 아름다웠던 삶’을 기렸다. 특별히 마지막 통장 잔고가 1천 달러가 안될 정도로 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청빈했던 고인의 삶은 조문객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천국환송예배는 박경일 목사의 집례로 남가주 총신동문회 증경회장 최순길 목사의 기도예이 이어 KWMC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26,계7장 9-17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석희 목사는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에 당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렸던 고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자”고 전했다.

총신 남성 중창단은 고인이 생전



엘에이 한국장의사에서 진행된 고 김경일 목사 천국환송예배에는 남가주 총신 목회자들을 비롯해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등 발디딜틈 없이 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했다. ©기독일보

즐거 부르던 “실로암”을 조가로 불렀고, 장남 김요셉 강도사와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 회장),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조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고인과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남가주다민족 기도회를 위해 함께 사역했던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고 김경일 목사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7년 이윅희 사모와 결혼해 슬하에 2남1녀(장녀 김한별, 장남 김요셉, 차남 김광능)를 뒀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가이오 세계선교회 상임총무를 역임했으며, 1991년 한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84회)을 졸업했다.

1992년 예장 합동 동서울 노회에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관리한 실재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멧쟁이들이 찾은 곳  
**my stylist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8:00 PM 토요일 09:00 AM~8:00 PM

**Tel: 213-739-1022**

# ‘차세대 목회자들 설교 축제’ 제6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개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감신헨리아펜젤러대학(총장 정인호 목사)이 주관한 2021 제6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지난 2일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설교 페스티벌에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헨리아펜젤러신학대학교(총장 정인호 목사),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 국제개혁대학교(총장 박현성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박사), 베데스다신학대학교(총장 조승제 박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총장 김성수 목사) 등 8개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이 참가했다.

8명의 설교자들은 “팬데믹 이후 교회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주최측에서 제시한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설교자들은 대면 설교와 영상 설교를 통해 교회가 어떤 대안적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보다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신헨리아펜젤러대학 정인호 총장은 “팬데믹으로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비대면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설교하는 젊은 차세대 설교자들의 모습이 보기



제6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좋았다”며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겠지만 오늘 설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대면의 환경에서도 활발한 복음 전파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올해 설교 페스티벌은 경쟁이 아닌 차세대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취지를 살려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설교페스티벌의 주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대에 필

요한 이슈와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 이민 1.5세나 2세와 같은 다양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이뤄져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설교우수상은 베데스다신학대학교 김미경 전도사가 수상했다. 또 설교모범상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이승준 전도사, 설교주해상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홍현설 전도사, 설교 전달상은 월드미션대학교 임원숙 전도사, 설교비전상은

미성대학교 공일환 전도사, 설교발전상은 국제개혁대학교 조배균 전도사, 설교부흥상,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한준희 선교사, 설교은혜상은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최영준 전도사가 수상했다.

한편 올해 설교 페스티벌 수상자들에게는 설교 우수상에는 수상자에 1천 달러, 학교에 500달러, 설교 모범상에는 수상자에 700달러, 학교에 500달러, 설교주해상에는 수상자에 600달러, 학교 400달러, 설

교 전달상에는 수상자 600달러, 학교에 200달러가 전달됐다. 또 설교 비전상, 설교발전상, 설교부흥상, 설교은혜상 수상자에 500달러를 전달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장학금은 은혜한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기쁜우리교회, 나성열린문교회, 오직예수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 아름다운교회가 후원했다.

김동욱 기자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전도용 선포기 사역 보고, 선교비 5만달러 전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선포기 사역 선교비 전달식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지난 28일 엘에이 융수관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선포기 사역을 보고하고 선교비 5만 달러를 국내외 해외 선교단체에 전달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홍콩의 크리스천 기업가 원유관 대표로부터 컨테이너 5대 분량, 모두 1만570

대의 선포기를 기증 받았고, 남가주 지역 교회에서는 선교적 목적으로 전달받은 선포기를 대당 10달러씩 후원했다.

이를 통해 모금 된 선교비는 해외 선교지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하이티, 멕시코, 콜롬비아, 네팔에 3만 6천 달러, 국내 선교지 나바호 인디안 선교, MOM선교회(선교지 약품보급

사역), 아버지밥상(노숙자 사역), 푸른 초장의 집(가정폭력 피해 여성 사역)에 1만 4천 달러가 전달됐다.

또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엘에이 총영사관, 웅기장인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터닝포인트교회, 텀플침례교회, 리스빌연합감리교회, 국경선교회에 1400대의 선포기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김동욱 기자

## KPCA 서중노회 여선교회, 미주장신대에 후원금 1천달러 전달



좌부터 교무처장 김루빈 교수, 기획처장 겸 학장 이명철 교수, 서중노회 여선교회 총무 홍혜정 권사, 회장 전영실 권사, 이상명 총장, 부회장 최은삼 권사, 원격교육처 우장훈 교수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 여선교회(회장 전영실 권사)는 지난 27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를 방문해 후원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여선교회 임원들은 블랜디

드(blended) 강의를 위해 최첨단 방송장비를 구비한 스마트 강의실과 방송국 등을 둘러보며 신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동욱 기자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웬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 눌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 일정**

-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7:30
- 10월 29일(금) 오후 7:30
- 11월 5일(금) 오후 7:30
- 1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강사: 최 훈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교회**  
The Lord's Church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4**

### “선교가 순교로 이어지다”

필자의 사돈 부인이 뉴욕에서 아들 며느리를 방문하였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단기선교를 마치고 왔다. 선교 중에 며느리(필자의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다. 필자 부부도 마침 엘리이의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 할 일이 있어 왔다가 사돈 부인을 반갑게 만났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우리는 같은 선교단체에서 동역하고 있다. 물론 양가의 자녀들도 모두 같이 동역을 하고 있다. 그녀는 파키스탄에서 현장기도팀과 합류하여 2개월간의 단기선교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파키스탄의 선교 부흥의 현장 선교 소식이었다.

파키스탄 안에는 탈레반, IS 등 수많은 테러 단체들의 군사훈련 기지들이 많은 곳이다. 특히 북부 인더스강 상류의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주 종족인 파슈툰족이 모여 살고 있다.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 종족인데도 파키스탄에 더 많은 수인 약 4천만 명이 산다. 본토인 아프가니스탄의 1500만 명에 비해 매우 큰 수이다. 그런데도 2억이 넘는 파키스탄 전체에서는 소수종족에 속해 여러 면으로 괘시를 받는 종족이다.

이번 단기선교팀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현장기도와 가까호호 방문하는 최전방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다. 한국이나 미국 등의 대부분 교회들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선교 활동 실행이 주춤한 상태임에도 우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미국과 한국에서 단기선교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각 단기선교팀의 구성이나 사역 방법, 전문성 등에 맞춰 각 선교팀의 이름이 다르다. MIT팀은 의료전문, 샘물 학교팀은 선교사 자녀훈련, 현장기도팀은 미전도지를 찾아다니면서 예배와 기도로 견고한 진을 부수고, 대학 SM팀, 유스팀, 키즈팀 등 많은 단기팀들이 올해에는 파키스탄을 겨냥하였다. 선교 중에 현지에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정권 이양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파키스탄으로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던 우리 선교사 팀도 마지막까지 카불에 남으려 했지만, 위험에 대한 모두의 조언으로 난민과 함께 산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사역자도 있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가운데 단기선교팀은 현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다. 현지의 성인 여인들은 평상시에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데 사회가 혼란하니까 더욱 집안으로 쫓겨 숨었다. 그런 그들을 찾아 여성 단기팀이 가정방문 전도를 시행하였다.

집 대문을 두드리면 현지 여인이 안에서 문을 연다. 몇 마디 인사말 나누면 대부분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한다. 차를 대접하고 환담을 나눈다. 한국의 문화, 드라마, 그들의 관심, 가족들 이야기 등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 금방 친구 같은 가까움이 생긴다. 그렇다. 우리들 세상에선 경험하기 어려웠던 이웃들과의 소통이 선교 현지에선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것을 선교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게 믿는다.

신앙고백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현지의 대부분 가정에 환자들이 있다.- 그에 대한 사연을 들으며 같이 눈물을 흘린다. 가정 안에서까지 부르카를 입는 여인들.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두건 중 부르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동자만 내놓고 모두 가려 입는 검은 옷이 부르카다. 히잡은 머리만 덮는 스타일이고 차도르는 머리부터 상반신만 덮는 가리개를 말한다. 그 폐쇄된 여인들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선교팀의 감격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천여 불의 비행기 비용, 수개월의 훈련과 기도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들의 귀에 전달되어 지는 그 이름 예수. 그렇게 전하면서 유난히 관심을 갖는 영혼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마침내 회개의 기도 영접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단기선교팀의 전도가 발판이 되어 장기선교사의 사역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신약에 등장한 회당”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사도바울은 선교를 위해 새로운 도시(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루스드라와 빌립보 두 도시(지방)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찾아갔던 다메섹 회당까지 포함하면 9개 도시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을 잘 활용하였고 회당을 통해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예수님도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병자를 고치셨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기록이 4복음서에 골고루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사역을 통해서 칭송(눅4:15)받으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바리새인과 같등의 원인(마12:9-14)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회당이 56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회당이 34회 등장합니다. 회당을 빼 놓고는 예수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고세진 박사는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에서 성서 고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했던 고고학 학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회당 사역을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회당사역을 간략하게 간추리면 4가지 사역, 즉 성서해석, 자신증거, 치유사역, 축신사역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회당이라는 말이 19회 등장합니다. 스테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회심이전에도 회당에 출입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소에서 이미 회당 교육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회당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인이 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자들을 압박할 때에도 회당을 활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포해온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때렸다(행22:19)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가면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회당을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눅4:19)처럼 바울도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행17:2)합니다. 구약을 알고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은 훌륭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로마황실이 '지배국 문화 존중 정책'을 활용하였습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 회당에서 진리를 전하면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을 활용하면 바울은 보호 받을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Synagogue)은 '함께 모인다(Synagain)'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회당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기도하며 울었습니다(시137:1-2). 그러다가 회당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구약에 회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74편 8절에 등장하는 회당은 '백성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회당이 우리가 논의하는 회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경인 마카비서에도 회당은 없습니다. 포로기에 미미하게 시작한 회당이 신구약 중간기 말에 활짝 피어났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당은 보편화되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에 400여개의 회당

이 있었습니다. 1세기 말엽 전 세계에 1000여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남자 성인 10명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 신앙을 전수하고 유대인 문화와 전통을 지켰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아이로를 위시해서 몇 사람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마다 세 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선교에서 두 사람의 회당장(그리스보, 소스테네)이 등장합니다. 이 두 회당장이 같은 회당을 섬겼거나 고린도 여러 개의 회당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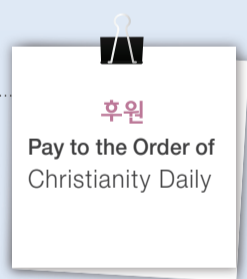
회당이 포로시절에 시작되었다고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회당의 기능 때문입니다. 회당의 기능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생활 중심(herb)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센터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회당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신앙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다양한 회당의 기능은 회당의 다양한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당의 다양한 이름을 열거해보면 베트 하테필라(기도의 집), 베트 하크네세트(집회의 집), 베트 미드라시(학습의 집), 베트 세페르(책의 집), 베트 크네셋(만남의 집) 등입니다. 회당의 다양한 이름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며, 토라를 읽었던 유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학교, 기도실, 예배당, 문화학습장 그리고 법원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은 1세기 중엽에는 외인을 환대하는 여관역할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예배에는 율법학자가 율법을 가르쳤고, 존경하는 손님이 방문하면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7.2 강진, 열대성 폭풍

# 아이티 긴급 구호 요청

규모 7.2의 지진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으로 최소 1,419명이 사망하고 6,900명이 부상했으며 150만 명의 집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간이 건물과 천막으로 구성된 아이티 마을은 거의 폐허 상태여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 예장 통합 류영모 총회장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의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6회기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3일 오후 류 목사가 위임목사로 시무하는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엔 순서자 등 소수만 모였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이날 예배는 총회 회계 전학수 장로의 대표기도, 총회 서기 조환국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의 설교,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격려사, 김학중 목사(꿈의교회, CBS 이사장)와 최영업 목사(노회장협의회 회장)의 축사, 류영모 신임 총회장의 답사 및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니키 검블 목사(알파 인터네셔널 이사장)는 축하영상을 보냈다.

류영모 신임 총회장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안고 씨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을 팔지 않겠

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자기 진영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겠지만 역사가 흐른 다음 언제나 정의 편에 서 있었다는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또 “어디를 가든 총회의 위상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총회의 위상을 세우고 사명을 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저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라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제게 심어주신 진리, 복음의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부족했을 수는 있어도 옳은 길, 진리라고 판단했을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장의 소명과 사명’(이사야 6:6-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순권 목사는 “우리 교단의 총



예장 통합 제106회 신임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답사를 전하고 있다.

회장을 세우는 일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며 “류영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총회장에 취임하셨다. 이것이 소명”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리고 이제부터 하

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사명”이라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심부름을 해야 한다. 교단과 전국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제부터 류영모 목사는 총회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

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임기 1년 동안 교단적인 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과의 관계, 대정부 대사회적인 면 등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할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보수도 진보도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통전적인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정말로 잘 살려 꼭 필요한 총회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한 김학중 목사는 류영모 신임 총회장을 단풍에 비유하며 “단풍의 절정은 이듬해 피을 꽃과 열매를 위해 자기 스스로 밀거름이 되는 것”이라며 “자신을 기꺼이 총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역사를 위해 내던질 수 있는 밀거름이 될 수 있는 분이 류영모 목사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류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예장 통합 제106회 총회 임원들이 단에 오른 가운데, 이들을 위해 손을 들어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 인천 백송교회,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에 매진하겠다”



입당예배 전 교회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 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 입당 감사예배가 9월 26일 오후 서창동 새 성전에서 개최됐다. 새 교회당을 두고 기도하던 백송교회는 최근 인천 남동구 장안산로 205번길 16(서창동) 교회당을 매입했다.

백송교회는 2016년 현 교회당과 2018년 보령 백송수양관 매입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2성전을 마련했다. 새 교회당은 지상 4층, 대 예배실은 1천석 규모이다. 리모델링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직접 맡았다.

이순희 목사 집례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경인지방회 부회장 류재호 장로의 기도와 경인지방회 서기 성인제 목사의 성경봉독, 두나미스의 찬양 후 경인지방회 회장 김영일 목사의 설교, 경인지방회 회계 김상배 장로의 봉헌기도 등이 진행됐다.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에베소

서 1:22-23)’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김영일 목사는 “지방회 교회들의 기도제목은 다 알진 못하지만, 백송교회는 간단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라며 “우주 속 한 점에 불과한 이 지구촌이지만, 백송교회의 입당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세상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만물 위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은 3가지이다. 바로 백송교회의 비전인 ‘영혼 구원, 제자 양성, 그리고 세계 선교’라며 “세상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가야 한다. 우리도 전직 까마귀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영일 목사는 “백송교회는 제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회가 끝나면 주소를 작성하는데, 사역자가 18명이라. 담임목사님이 눈물과 기도로 양육한 분들이 치유 사

역과 말씀 사역에 힘쓰다 보니,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마지막 시대에 백송교회뿐 아니라 우리 지방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입당감사 및 축하 시간에는 이순희 목사의 ‘빛을 발하라’ 찬양,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의 특송, 이순희 목사의 낭편인 김광옥 장로의 건축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이순희 목사의 입당 감사기도 등이 이어졌다.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서울신대 총장 황덕형 목사는 축사에서 “이곳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되길 바란다”며 “이 성전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에도 크게 사용되시길”이라고 전했다.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망이 모아져, 가장 적합한 곳에 성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새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목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바쁘신 중에도 축하와 축복을 위해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교역자회장 백홍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백송교회는 입당을 기념해 마스크 20만 장 나눔을 실시했다.

이대웅 기자

## 예장 고신,전광훈 목사와 인터콥에 ‘교류 금지’

지난 9월 28-30일 열린 예장 고신 제71회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 ‘참여 및 교류 금지’ 조치를 결의했다.

이번 결정은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고 청원한 경기북부노회장 오동규 목사의 ‘이단 규정 청원’ 건에 대한 것으로, 청원 건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결정이다.

고신 총회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 제66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결의한 바 있다. 여기에 ‘심각한’이라는 단어를 붙여, 한 단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해 주요 교단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한기총 회장으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과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대들은 반대 발언에 나섰다. 한 총대는 “전광훈 씨는 문제가 많지만, 어떤 일관된 교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발언을 자꾸만 하는 사람인데, 굳이 그에게 ‘별을 달아줄 필요가 있는가?’라며 “그냥 현재의

## 이대위 보고서 ‘전광훈 목사 발언 도에 지나쳐’ 인터콥에는 ‘심각한 이단성 있는 불건전 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선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다. 이단 규정 직전 단계라는 의미다.

고신 이대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단체와 교회에서 활동해 왔다. 그의 수많은 집회에서의 발언이 도에 지나친 면이 많았으나, 개인의 활동 정도로 보고 지나쳤다고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서 활동과 발언은 다른 문제로 본다.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본 총회를 포

참여금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도 “전광훈 씨에게 문제가 많다. 하지만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단 규정을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곤 목사(거제 고현교회)도 “전광훈 씨가 문제가 많지만,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회장은 보고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 ‘이단성 있는 이단 단체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 결의를 제안해 통과시켰다.

이대웅 기자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 동족선교**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업에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과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백송교회**  
백송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특별 영혼으로 소생하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과 유교 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들을 위한,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oin 2번)  
T. (213)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서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번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점심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수, 금,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사모 함께 할라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상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고등부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주일 1부 오전 7: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Emissary (Savior)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겨레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2부)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2부 예배 오전 9:00 교육부 주일예배  
공포성경공부 저녁 7:30  
베드로 성령 강령(5월) 5월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EM: 오후 1:30  
(818)363-8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달)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 커크 프랭클린 “하나님 목적=인간의 행복, 오해 벗어나야”



커크 프랭클린 ©유튜브 캡처

미국의 유명 가스펠 가수이며 그래미상 16개 부문 수상자인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오직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커크 프랭클린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의 빈곤층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달 24일 국제 캠페인과 재발매한 1998년 히트곡 “린온미(Lean on Me)”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로 51세인 그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분의 주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깨어짐(being broken)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자 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인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들린다.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지능은 영적인 것에 다가가지 못한다”면서 “영적인 것들이 순하게 오용되고 조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랭클린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남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깨뜨리시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프랭클린은 “깨뜨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강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 하기 때문에,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게 보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금은 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순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일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클린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 일을 사용하시나요?’ 때때로 나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프랭클린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대화가 많은 것이 세상에서 비극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삶에서 실재하는 방식으로 대화 뒤에 남는 유산은 충분하지 않다”며 “세계의 모든 부와 가난과 부패 수준(으로)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유일신론적 사고방식의 암시나 성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미소를 짓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외에서부터 빈곤의 상태, 인종과 성차별 및 비관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떤 ‘주의(ism)’가 일어나는 간에, 우리는 겉손이 겹쳐져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나의 필요를 걱정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욱 염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와이드 믹스(Worldwide Mix)’로 불리는 이번 재발매 앨범은 120명의 뮤지션들로 구성된 컴패션 청소년 합창단이 함께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1998년 발매 당시 이 곡은 프랭클린의 앨범 ‘The Nu Nation Project’의 수록곡이며, 기독교 앨범 차트에서 23주, 빌보드 가스펠 앨범에서 49주동안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새 버전은 현재까지 유튜브 조회수 12만을 넘어섰다.

김유진 기자

## 탈트랜스젠더 기독교인, 옥스포드대 복음주의 행사 지지

일부 학생들 항의로 학교 측이 사과하자 입장 표명



리비 리틀우드. © X-Outloud 제공

이와 관련, 탈트랜스젠더 크리스천 리비 리틀우드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살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월버포스 아카데미는 내게 일반적인 정치와 대중의 편협함 때문에 침묵하게 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지 목소리를 냈다.

월버포스 아카데미는 복음주의 단체인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이 매년 주최하는 청년 훈련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간 진행된다.

리틀우드는 “이번 행사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주 ‘아침 식사 때 전단을 두고 온 것’에 대해 일주일 내내 동성애 혐오증이나 이슬람 혐오증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나의 개인적인 간증이 종종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그들의 도덕성과 견해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월버포스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배경은, 기독교 신앙과 상충되는 다원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쳐 있었다. 우리는 이슬람에 어떻게 다가갈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아이작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탈트랜스젠더 기독교인 여성이 옥스포드 대학의 복음주의 행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의 일부인 우스터 대학은 복음주의 행사인 ‘월버포스 아카데미’를 주최했다가 일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해야 했다.

이 학생들은 원치 않는 동성애의 유혹에 이끌리는 이들을 돕는 ‘코어 이슈 트러스트(Core Issue Trust)’ 설립자 마이크 데이비스의 출연을 특별히 문제 삼았다. 또 ‘이슬람의 본질’이라는 세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 PCUSA 목회자 44% “정신 건강 상담 훈련 경험 無”



©pixabay

미국장로교(PCUSA)에 속한 목회자들 상당수가 교회 내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장로교 목회자들 4,507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정신 건강 문제를 인식하거나 직면하는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는 “사역 중에 배웠다”고, 18%는 “신학교나 대학에서 훈련받았다”고, 16%는 “지속적인 교육의 일부로 훈련받았다”고 했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 중 61%는, 훈련을 통해 이 문제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PCUSA 리서치 서비스의 자사론드 로이스톤과 수잔 배럿은 설문에 응한 목회자들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정신 건강이나 약물 남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응답자 중 44%가 정신 건강 문제를 인식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4%는 정신 건강 문제나 약물 남용 징후를 보이는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이 보고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PCUSA 소속 목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주류 개신교 교단의 모든 목회자의 23%를 대표하는 약 4,500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PCUSA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PCUSA 선교국은 교인 6,000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및 교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의 54%가 자신의 교회가 정신 건강 사역에 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30%만이 이 같은 종류의 사역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PCUSA 교인, 지도자, 목회자들은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문제를 다루길 원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와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정신 건강 사역 보조금 프로그램, 웹사이트, 장로교 정신 건강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됐으나, 이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미 기독교계,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복원에 3천만불 모금



베들레헴에 소재한 예수님 탄생기념 교회 ©wikipedia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고대 교회를 복구하기 위해 미국 기독교인들이 3천만불을 모금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베들레헴에 위치한 ‘예수탄생 기념 성당(Church of the Nativity)’은 기독교 성지 순례 명소이자, 201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유산이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보존 상태 악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돼 있다.

565년경에 완공된 이 교회는 1480년 이후로 크게 보수되지 않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기부 덕분에 지붕, 정면, 모자이크 및 문에 대한 복원 공사를 끝마쳤다.

베들레헴 개발 재단(Bethlehem Development Foundation, BDF)의 이사 겸 최고경영자인 마젠 카람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예수탄생 기념성당은 역사와 신앙의 보물이다.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고 이 보물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끝마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2018년 ‘베들레헴 재단의 미국 친구들(AFBDF)’이라 불리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출범했고, 미국 기부자들로부터 지난 8년 동안 약 3천만 달러의 복원 기금을 모금했다.

조지 살렘 AFBDF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베들레헴의 성지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미국 친구들의 막대한 지원과 예수탄생 기념성당을 되살리려는 그들의 헌신에 감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과 AFBDF는 성당의 외부 정면, 벽

모자이크, 바실리카 문, 내부 석고, 중앙 본당의 마지막 11개 기둥을 포함해 목조 건축물, 설치 조명 및 연기 감지 시스템의 복원에 재정을 지원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외벽 강화를 비롯, 돌과 대리석을 이용한 바닥 공사, 앞마당 석조 타일 복원과 소방 및 미세 기후 시스템 설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무엘 쿠오리 BDF 이사회 의장은 “예수탄생 기념 성당을 이전 영광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베들레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그 이상이다. 우리는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평화, 사랑과 기쁨을 전하기를 희망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베들레헴은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제한령으로 인해,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급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성당은 325년부터 326년 사이에 헬레나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돼, 339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설립됐다. 그러나 529년 경에 사마리아인의 반란으로 인한 화재로 파괴됐다가, 비잔틴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새로운 대성당으로 재건됐다.

성당의 주요 제단 아래에는 ‘예수탄생의 동굴’이라 불리는 지하 공간이 있으며, 예수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정확한 지점은 대리석 바닥에 은색 별들이 둘러져 있다.

현재 성당의 주요 집회 공간은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p> <p>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b>권영국 담임목사</b></p> <p><b>대흥장로교회</b>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p> <p><b>서보천 담임목사</b></p> <p><b>돌로스교회</b>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p>
---	--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p> <p>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b>김경환 담임목사</b></p> <p><b>은혜로교회</b>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77-7766 / www.gwctorrance.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p> <p>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b>이중용 담임목사</b></p> <p><b>코너스톤교회</b>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p>
--	--

<p>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p> <p>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b>고창현 담임목사</b></p> <p><b>토렌스제일장로교회</b>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KM찬양예배 오후 2:00</p> <p>오전 8:00 오전 9:45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p> <p><b>김우준 담임목사</b></p> <p><b>토렌스 조은교회</b>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p>
---	---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찬양예배 오후 2:00</p> <p>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p> <p><b>구봉주 담임목사</b></p> <p><b>감사한인교회</b>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p> <p>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설거족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p> <p><b>오병익 담임목사</b></p> <p><b>남가주 벨엘 교회</b>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p>
--	--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p> <p>수요예배 오후 7:30</p> <p><b>백정우 담임목사</b></p> <p><b>남가주동신교회</b>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p>	<p>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p> <p>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00am</p> <p><b>안창훈 담임목사</b></p> <p><b>늘푸른선교교회</b>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p>
---	---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예배 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p> <p><b>안성복 담임목사</b></p> <p><b>다우니제일 교회</b>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p> <p><b>림학춘 담임목사</b></p> <p><b>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b>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p>
--	---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p> <p>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b>이서 담임목사</b></p> <p><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p>	<p>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p> <p>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분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p> <p><b>김한오 담임목사</b></p> <p><b>베델교회</b>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	--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p> <p><b>박신웅 담임목사</b></p> <p><b>얼바인온누리교회</b>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p> <p><b>한기홍 담임목사</b></p> <p><b>은혜한인교회</b> 행복한 교회 상급평신도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	---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남성수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p>	<p>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박훈 담임목사</b></p> <p><b>함께 걷는교회</b>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p>
--	---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교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교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

# 다양한 기독교정보

# 기독교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 신문 GO

# 고고학자들, 터키 산에서 '노아의 방주' 추정 흔적 발견

### 3D 스캔 기술 이용... 성경에 기록된 방주와 길이 동일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와 일치하는 '배의 형태'를 터키의 한 산에서 발견했다. 3D 스캔 기술을 이용해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번 발굴을 맡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앤드류 존슨 박사는 "이 배의 형태가 노아의 방주와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더선'은 "고고학자 팀은 레이더를 이용해 이 장소를 조사했다"고 했다.

존슨 박사는 "이 터가 단지 단단한 암석 덩어리거나 진흙 잔해들이 축적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배가 만약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배라면 여러분은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고학자들 따르면, 이 배는 길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의 그것과 똑같다. 성경은 이 방주가 300 규빗(약 150m)라고 언급하고 있다.

CP는 산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물체를 3D 스캔을 이용해 발견한 것은 처음이기에 획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관들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이길 기대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 웹사이트는 "새로운 GPR 데이터가 '80에서 20피트 아래'의 각진 구조와 평행선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는 "표면 아래의 평행선과 직각들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형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며 "흥미롭게도 이 배 판대는 성경에서 주어진 방주와 정확히 같은 길이인 것



무인기로 촬영된 터키 동부의 두루피나르 생성 현장. ©유튜브 영상 캡처

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트 모양이 보여주는 층의 위치는 두루피나르라고 불리는,

터키 동부의 바위 지점 아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발견 장소에 대해 독특한 암석

형성된 것이며 노아의 방주의 흔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혜진 기자

##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의장, 무슬림 테러로 사망 기독교 학생들 대피시키려다가 참변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 요하나 슈아이부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나이지리아의 한 기독교 지도자가 폭도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요하나 슈아이부 목사는 카노주 수마이라 지방에 소재한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의 장이다.

슈아이부 목사가 최근 한 무슬림 청년의 개종에 연루됐다고 오해한 극단주의자들은 마수 마을에 위치

한 그의 자택을 공격했고, 그는 하루 뒤인 23일 사망했다.

슈아이부 목사는 이 사건 전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를 받고 가족들과 이웃 마을에서 지내다가, 금금 마련을 도왔던 하우사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마수로 돌아왔다.

그와 가족들은 폭도가 습격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자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와 자녀

들은 탈출에 성공했으나, 그는 여러 차례 칼에 맞고 결국 사망했다. 공격자들은 또 그의 가정, 교회, 학교를 불태웠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슈아이부 목사는 지역 학교 외에 여러 계획에 참여한, 영감을 주는 인물이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그는 생전 정부가 제공하는 수자원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기독교 공동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또 무슬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역 모스크의 결함 있는 우물을 보수하기도 했다.

CSW 창립자인 머빈 토마스 총재는 슈아이부 목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가 지도자에게 종교 간 화합을 촉구했다.

그는 "남편, 아버지,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애도하는 고인의 아내, 아이들, 교회, 지역사회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한다"며 "지역사회는 슈아이부 목사를 몹시 그리워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 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기소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과 주 당국이 종교적 폭력의 정기적 발생을 조정하는 사회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종교 간 화합과 시민권 평등을 증진하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같은 자질을 말과 행동에서 일관된 본보기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스위스 교계 "동성혼 법제화 반대... 종교 자유 수호할 것"



빨이 5개 달린 사단의 복장으로 등장한 드래그 퀸(여장한 남성 동성애자)이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다. ©REALOMARNAVARRO

### 난자 기증 및 대리모 출산 허용 시도도 우려

스위스에서 동성결혼이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가운데, 스위스복음연맹(Swiss Evangelical Alliance)은 "교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위스 국민의 64.1%는 국민투표를 통해 '모두를 위한 결혼'(Marriage for All)안에 찬성했다. 이 안은 통과됐지만 법적으로 효과를 얻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위스복음연맹은 "이 법안은 '너무 지나쳤다'며 '아이의 권리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 어른들의 바람이 아이들의 권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난자 기증 및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스위스복음연맹은 "교회는 이성 커플의 결혼에 대해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며 "우리는 교회의 결혼식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혜진 기자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포항공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618 S. Western Ave #203, Los Angeles, CA 90006  
Tel: (323)843-0301, Fax: (323)8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기독교인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지난 9월 17일 미국의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제작사인 넷플렉스 티브이(TV)에서 9회 분량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내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월 27일에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83개국 중 76개국에서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 1970년 ~ 80년 당시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많이 즐기던 놀이로서 당시에는 ‘오징어 가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던 게임이다.

“오징어 가생”은 일본말로 “갯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갯생”의 뜻은 편을 나눠 싸우는 ‘합전’(合戰)을 뜻하는 단어이다. 즉 이와같이 “오징어 가생”은 민첩함 외에도 몸과 몸이 부딪치는 육박전이 불가피해 여러 ‘가생’ 중에서도 가장 격렬했고, 남남이 섞여서 놀기도 했던 거친 놀이였는데 그래서 진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잦았던 놀이이다.

그런데 이번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이렇게 사라진 지 오래 된 추억의 게임을 주제로 하여 상금 456억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스메치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 대한 선호나 평가는 개인 취향에 따라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관하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3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리부때문이다. 특별히 이번 드라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왜곡된 시선으로 불편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기독교를 더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중에 대표적 이미지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물중 “데스게임”에 참여할때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의 모습은 아무 때나 큰 소리를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엇보다 뒷사람이 탈락을 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앞길만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성을 벗지 못한 미성숙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소개된 3명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각기 다르게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인 기독교인” 그리고 “연행불일치의 기독교인”인 것 처럼 비쳐질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에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이지만 정작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정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려진 기독교인에 모습을 “반기독교적 캐릭터”로 그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렇다. 물론 극중 인물은 드라마에서 244번이나 이기적 행동을 하고, 살인 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로 과도하게 반기독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도록 설정된 인물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불편함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회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 perish로 끔찍하고 처참하게 죽는 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드라마에서 소개된 3명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 기독교인들에게 비쳐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 한번쯤 자신을 뒤돌아 볼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듯 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써 삶의 회복을 위한 Tip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회개와 죄 사함” 일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의 영과 육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삶이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 어머니라고 불렸던 조이 도이슨은 “회개는 생각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요, 죄에 대한 삶의 변화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혹시 기독교인이라 우리를 겨냥한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에 불편함을 느낄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과 자기성찰의 시간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함에 우리 자신을 오려 놓을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안에 있는 세속적인 정욕과 싸워야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안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 다. 참 신앙이 왜곡되고 만들고 참 복음이 변질되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안에도 이런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엄히 경고한 위험한 신앙이며, 그릇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은 4가지입니다.

- 1.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 2. 성령으로 기도하라
- 3.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로 이것인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라보는 삶의 처방전입니다.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은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는 우리의 삶에는 <영광의 무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 못할 하나님앞 심판대 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돌린 영광의 무게를 달아 본다면 우리의 영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달아보게 될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고전 10:31)>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러가야하는 삶의 여정의 타겟이며 믿음의 경주 마지막 목표점이며 결승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그 시선과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 다.

세상적인 영광에 빠져서 착각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도취되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보는 영광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영광, 그래서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광, (요 12:23-25)”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을 살아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유다서 1장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하는 삶의 영광송, 송영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범한 서신이며 편지입니다.

유다서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구절이 3절에 등장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 1:3) 여기서 싸운다 Fight 라는 단어는 <레슬링 경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스 도인이 세상의 거짓된 자들과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일부러 병원에 붙잡아 둔 것이었다.

친구가 일러 준 집에 찾아가니 죽은 아버가 살아 돌아왔대도 이만큼 기뻐할까 싶을 만큼 사람들이 반색을 하며 반겨 주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일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당신도 어차피 공화국이 말하는 소위 적색분자이니 이제부터 우리와 손잡고 좌익으로 인해 생사 존망의 기로에 선 민들들을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자고 말했다.(계속)

### 연재 '젊음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당시 내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는 나와 소학교 동창으로 하루도 빠짐 없이 나를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지금 나와 함께 피를 나는 형제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위험천만한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특별히 다친 곳이 없었다. 어디 다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태에 빠진 운전사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곳이 없으니 퇴원하겠다고 해도 의사 친구는 나의 요구를 묵살하며 병원에 잡아 두고는 집요하게 반공

선전 공세를 펼쳤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깊이 알고 있으므로 그때 친구가 한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반동 선전에 불과했음을 안다. 친구는 매일 찾아와서 유물론적 변증법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를 찾아가려는 인간의 허망한 생각에 불과하며 유신론적 변증법이 정확한 논증이라고 설득했다. 하루는 듣다 못해 화가 나서 소리쳤다. “유물론적인 변증법이든 유신론적인 변증법이든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독재자한테나 가서 강의하시

고 내 상처의 경과가 어떤지나 살펴 보시오. 나를 병원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잡아먹든지 빨리 대책을 취하란 말이오.” 그러자 친구는 몹시 반색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 일찌감치 네 정체를 밝혔으면 병원에 갇혀서 고생할 일이 없었을 것 아냐! 나는 여태 네가 그렇게 말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 줄 아냐? 지금 당장 퇴원해도 좋아.” 그러면서 내게 할 말이 있으니 어느 집에 가라고 일러 주었다. 그 동안 친구는 내 정체를 알기 위해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b>이사의 명가(名家)</b>	<b>가주 삼성 통운(주)</b>
<b>귀국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li><li>- 포장 재료 무료 제공</li><li>-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귀국자동차 운송</li><li>-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li><li>- 무료 참고 보관 2개월 서비스</li></ul>
<b>시내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li><li>-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li><li>- 포장 box 대여 및 판매</li><li>- 사무실, 공장 이사</li><li>- 참고 보관 가능</li></ul>	<b>타주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li><li>-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li><li>-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li><li>- 새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li></ul>
<b>자동차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li><li>-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li><li>- 초 저가 차량 운송</li></ul>	<b>해외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하와이, 괌, 알라스카</li><li>- 중국, 일본, 남미</li><li>- 캐나다(밴쿠버, 토론토)</li><li>-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li></ul>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그리스도의 표적을 위한 기적들

마태복음 8:23-2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이적은 한자로 異(다름 이), 跡(흔적 적)입니다. 보통 인간의 지각, 이성적 분별력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이적이라 합니다. 기사는 奇(신기할 기), 事(일 사)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의식수준으로는 형이하학이나 형이상학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의 흔적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 보게 하기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내신 흔적을 말합니다.

## 1.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마태복음 8장은 1절부터 이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은 인간 영은 하나님이라는 신인양성(神人兩性)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한 표적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그 뒤를 멀찍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던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나와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합니다. 이 함축된 표현의 간절함 속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문둥이인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문둥병은 문제없이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믿어지지만 내가 문둥병 고침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절대주권을 100%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말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기적도 예수님을 그 문둥병자가 알아보았고 믿어진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었던 사실이 100%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적적인 구원을 얻었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이적 혹은 기적으로 구원 얻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만한 증거의 재료거리로 제시되어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 2. 백부장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문둥병자 일이 있고 난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마8:6)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8:8)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대의 파견 대장이고 그 사람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부대 안에 오시는 것을 감당 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히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혹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올 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적기사,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의 하나였습니다.

그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인 로마군대의 장교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인적 수양이 예수님께 점수를 딸 수밖에 없도록 겸손하고 진실했으며 섬김이 지극했습니다.

## 3.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는 베드로가 사는 벳새다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찾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8:15)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앓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깨끗이 나아서 열이 싹 내리고 말짱하게 일어나서 물통 들고 우물에 가서 물 길러가니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어졌고 날이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마8: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마8:17,사53:4).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적기사의 표적이 베드로가 살던 동네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 4.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예수님의 이적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며 옹위합니다. 그때에 어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절을 하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물질기대심리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으니 장사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냉담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하십니다(마8:22)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또 저희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빌립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초상 치르는 여유도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았기에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하고 하늘소망의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 입장이 너무 뻣뻣하기에 아버지의 장례치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하고 너는 생명을 얻어 살았으니 나하고 같이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57이하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이 영혼을 맡김이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일로 뒤돌아보게 되면 그 인생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가기를 목적하는 신앙인이려면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 받으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만 살아야지 육신이 세상일에 얽매고 빠져들다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 6.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한 메시아의 증거(證據)

본문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갈 채비를 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 닥치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찾다보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 사공이었던 제자들과 배 밑에 칸에서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만 안타달이 나서 죽겠다고 호들갑떨고 소란스럽고 야단법석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이 한마디 속에는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이 배가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왜 공연한 걱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백성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쓰실 계획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나를 쓰실 계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일들이 행통하게 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전자동 Z-UP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 하루 5분으로

###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모든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Z-UP 전자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웨스턴빌,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b>\$79</b> +Tax	3병 구입시 <b>\$225</b> +Tax	6병 구입시 <b>\$432</b> +Tax
-------------------------------	--------------------------------	--------------------------------

**213-434-1170**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양희은의 고백

#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인생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라 그래  
양희은  
김영사 | 244쪽

어떻게 인생이  
쉽기만 할까?  
그저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나답게 살면  
그만이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이 있다. 몸무게가 변한다. 먹는 음식이 변한다.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변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의 변화다.

어린 시절 강함의 기준은 단단함이었다. 단단한 것이 강한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강인함,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강함이었다.

사춘기를 거치며 또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는 많이 가진 것이 곧 강함이라 여겼다. 용돈을 많이 가진 친구, 남들이 가지지 못한 최신 신제품을 가진 친구가 곧 강함이었다.

철이 조금 들었을 때는 무소유가 강함이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강함이라 여겼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단단함도 아니고 많이 가지거나 무소유도 아닌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라 그래’, 이 말보다 강한 말이 있을까?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담백한 표현이다. ‘아침이슬’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가수, <그러라 그래>의 작가는 양희은이다.

저자는 나이 드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십 대가 되니 나와 다른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육식 세를 넘기니, 흔들릴 일이 드물어졌다.”

양희은 그러라 그래 열 길 묵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조금 의미를 덧붙여 그 사람의 속사정은 당사자밖에 모른다고 표현하고 싶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연예인의 이미지가 아닌, 저자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흔적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다. 담담하게 풀어낸 사연은 읽는 사람까지 담담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을 가슴에 품고 산다. 장르는 다양하겠지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고 가감 없이 펼쳐낸다.

젊은 나이, 석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계획이 있을 리 없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

다. 기적적으로 시한부 석 달이는 시간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나 기뻐할 여유는 없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불어난 집안의 빚 때문에 다시 일터를 전전해야 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자는 부모의 이혼, 새 엄마의 등장,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서른 살에 맞이한 시한부 선고에서 어머니의 치매까지,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모진 바람을 맞으며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당시, 저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 아iman 살려주시면 내 눈을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원 여덟이 된 저자의 기도는 “엄마가 제발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앞으로 10년만 더 사셨으면”이

다. 저자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다.

힘든 순간 저자를 지켜준 것은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가수의 길을 열어 준 송창식,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신부님, 자신의 노래를 사랑해준 사람들까지, 모두 저자의 인생에 힘이 되었다.

사람의 본질은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만남도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임이다.

받아들이는 쉽지 않다.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용량이 넘쳐 탈이 나고 만다. 고난도 만남도 그렇다. 잘 받아들이는 것은 간직할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결국 썩고 만다. 좋은 것도 이별해야 할 때가 있다. 저자는 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 받아들이는 힘을 얻는다.

“서른 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의 장례식. 열 세 살짜리 나는 상주였다. 나는 아버지의 관 위에 가득했던 노란 국화, 흰 국화와 더불어 까만 리본을 지울 수

가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국화는 그 뒤에 이어진 생활의 고달픔과 등식이었다. 그래서 국화는 내게 고달픔이기도 했다.

그랬던 내가 얼마 전에 국화를 샀다. 국화를 사다니? 내가 다 놀랐다. 세월이 그만큼 많이도 지났구나 싶었다.”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 채워감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몸 안에 들어온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듯 우리는 다가오는 환경과 만남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인생보다 짧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작다. 쉽지 않겠지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인생이 된다. 감당할 수 없이 몰려오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이렇게 외쳐보길 바란다. “그러라 그래”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양희은 데뷔 5주년  
현재진행형 에세이

양희은 지음  
244쪽 | 14,500원

“  
어떻게 인생이 쉽기만 할까?  
그저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나답게 살면 그만이지  
”

기독교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몰티슈

몰티슈 주부제안  
교회학교  
마그네틱칼렌다  
교과교과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일찍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세계 1위 오른 <오징어 게임> (上)

#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일본식 데스 게임 콘텐츠에 갖든, 종교성과 미신적 요소 귀신이 인간 농락하는 힘 가진 상위 존재로 설정돼 있어 신-인간 관계, 불안정하고 두렵고 위협적으로만 묘사해 이 두 가지 그릇된 방식, 초월적 실재 성경 가르침 왜곡



목숨을 건 잔혹한 데스 게임을 소재로 삼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데스 게임 콘텐츠: 일본식 데스 게임 콘텐츠의 지배적 영향력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내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상금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생존 게임에 돌입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일전에 <머니게임>에 대한 논평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제작되는 데스 게임 콘텐츠 대부분은 만가(漫画, 만가), 즉 일본 만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데스 게임 콘텐츠의 원조는 미국이다. 통상 1979년 스티븐 킹이 발표한 소설 <롱 워크>(The Long Walk)를 데스 게임 장르의 출발점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이 데스 게임 장르를 서브컬처에 편입해 본격적으로 대중화한 것은 일본의 소설가와 만화가들이다. 1998년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 1999년 타카미 쿄순의 소설 <베를 로얄>, 이 두 작품은 일본식 데스 게임의 전형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일본식 데스 게임 콘텐츠는 카이타니 시노부의 <라이어 게임>(2005-2015), 카네시로 무네유키, 후지무라 아케지의 <신이 말하는대로>(2011-2017) 등을 통해 명맥을 이어 왔다.

이 작품들은 일본 문화 특유의 폐쇄성과 호전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고립된 지형적 특성, 그리고 초대형 재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적인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대 및 중세 역사는 거의 항상 다이묘(大名)로

대표되는 군벌들의 군사적 연합과 경쟁으로 점철되곤 했다.

군벌들이 군사력을 바다 너머 외 부까지 펼치기 어려웠고, 백성들 대다수가 사람의 목숨이 자연재해 앞에서 별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일상적으로 목격해온 탓에 내부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에 자주 돌입했던 것이다.

일본식 데스 게임 콘텐츠의 설정 역시 이러한 일본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게임 참여자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서로 목숨을 내건 경쟁에 돌입한다.

패자는 죽고, 승자는 막대한 보상을 획득한다.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경쟁하는 상황은 독자들에게 상당한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이 큰 강점을 보이는 산업 및 문화 발전 방식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선진 기술이나 콘텐츠를 힘써 모방한 뒤, 한국의 기술 및 문화요소를 약간 가미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는 것, 이 전략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막대한 채무에 짓눌린 인간 말종들을 상금을 미끼로 꾀어내는 것은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설정을 빌려온 것이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 죽고 죽여 최후의 1인이 모든 보상을 가져가는 것은 <베를 로얄>과 <신이 말하는대로>의 설정을 차용한 것이다.

각 참가자에게 1억원씩 상금을 배정하여 서로 목숨을 걸고 빼앗도록 하는 것은 <라이어 게임>의 설정을 가져온 것이다.

게임의 내용 역시 일본 데스 게

임 만화에 등장한 게임들을 비슷하게 모방했다.

1단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분명 한국의 놀이이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룰은 일반적인 룰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기괴한 인형이 술래로 등장하고 제한 시간 안에 특정 라인에 도달해야 하는 규칙은 <신이 말하는대로>의 첫 번째 게임인 '다루마' 놀이의 룰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 3단계에 등장한 사바이벌 줄다리기 역시 <신이 말하는대로>에 등장한다.

5단계의 징검다리 게임은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인간 경마' 게임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곳에서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죽는 설정, 다리를 건너는 순번을 놓고 눈치싸움을 하거나 앞의 경쟁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설정, 그리고 강화유리로 만든 다리라는 설정을 차용했다.

이렇듯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데스 게임 콘텐츠 설정 및 요소들을 이리저리 모방해 한국식으로 절묘하게 가다듬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오징어 게임>의 표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데스 게임과 종교: 오니(鬼, おに)

로 구체화된 일본식 종교성과 미신의 유입

일본의 대표적인 데스 게임 소설, 만화, 드라마, 영화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작품은 <신이 말하는대로>이다.

이 만화는 데스 게임 특유의 잔혹성과 고어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작품으로, 일본의 다신교 신들이 등장해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주관한다.

게임 참가자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며, 매 단계마다 위험한 생존 게임이 전개된다. 게임에서 생존한다고 해서 특별한 보상은 없다. 참가자들의 목표는 오로지 신들의 잔혹한 놀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다루마(달마, 선불교의 시조) 인형, 거대 마네키네코(돈을 벌게 해주는 고양이 모양의 장식물), 인간 크기의 코케시(머리와 몸통만 있는 인형) 등 일본의 토속 종교와 미신을 반영하는 형상들이 등장해 게임을 주관하는 동시에, 패배한 인간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신이나 요괴, 오니 등에 농락당하고 살해당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는 일본의 신화 및 민담에 흔하게 등장한다.

앞서 말했듯 일본은 태풍,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게다가 지형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악 지형이 많아, 과거에는 산마타 도적이 들끓기도 했다. 여러 모로 인간의 삶에 두려움을 선사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 이런 불가해한 자연현상과 위협적인 환경은 일본인들 특유의 정령신앙(animism)에 의해 각종 신들의 현현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괴팍한 성격에 우락부락한 체격, 무서운 얼굴을 가진 악귀 오

니는 일본인들이 산적, 범죄자, 혹은 일본 홋카이도 원주민 아이누 족을 보고 착안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오니들은 인간과 내기를 즐기며 비위를 거스리는 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특성을 가졌다. <귀멸의 칼날>은 이런 오니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으로 손꼽힌다.

<신이 말하는대로>는 이런 오니에 대한 일본의 전통 민간 신앙이 데스 게임에 접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 꽤 가까운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인신공양 풍습도 모티브로 삼는다.

<신이 말하는대로>에 등장하는 악신들은 기괴한 게임을 통해 인간들을 학살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그들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데스 게임 콘텐츠, 특히 <신이 말하는대로>의 설정과 분위기 일부를 그대로 채용해 서사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1단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은 <신이 말하는대로>의 설정 요소뿐 아니라, 무서운 분위기의 초월적 인형이 자아내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마저 그대로 모방했다.

이런 일본식 종교성과 미신적 요소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니, 즉 귀신을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자로 설정하고 인간을 능히 농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신-인 관계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불안정하고 두렵고 위협적인 것으로만 묘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이 두 가지 그릇된 묘사 방식은 영적 실상, 초월적 실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나는 왜곡 행위로 간주된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실사 영화 <신이 말하는대로>에 등장하는 마네키네코.

## 중고등부 파트타임 교역자 청빙

시애틀 하나교회에서 중고등부 파트타임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3년전에 세워진 교회로 중고등부 학생수는 적습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미래의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고 세상 속 변화를 주도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삶으로 경험하신 하나님을 나누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1) 복음주의 신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2) 영어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포함)  
2) 자기 소개서 (신양간증, 영어)  
3) 사역 비전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5) 목회자 추천서 2장

질문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연락 주시길 바라며, 서류는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sjtj4j61@gmail.com](mailto:sjtj4j61@gmail.com) (Pastor Sang Grossi)

Hana Church is located in Lynnwood, WA, and we are seeking a part-time youth pastor. The youth pastor will serve 7-12 graders to help them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teach the truth according to the Bible, reach students who are not connected to church, and raise up everyday disciples.

**Qualifications:**

- Must have a passion for youth in Christ's love
- Must be fluent in English & proficient in Korean
- M.A., M.A.R., M.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or in the process of obtaining one

**Required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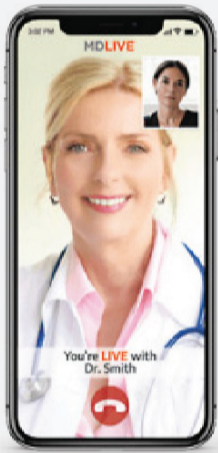
- Resume (English, personal photo attached)
- Personal Statement (English)
- Ministry Vision
- Proof of Attendance or diploma
- letters of recommendation (2)

Plea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and submit all applications to: e-mail: [sjtj4j61@gmail.com](mailto:sjtj4j61@gmail.com) (Pastor Sang Gro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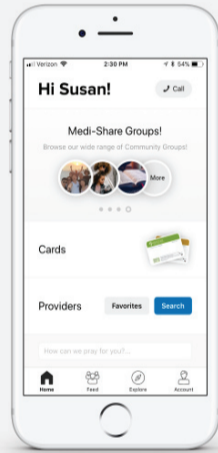
#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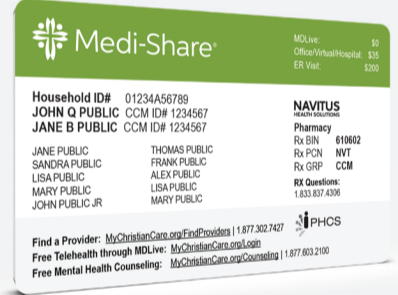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email: [prozusa2@gmail.com](mailto:prozusa2@gmail.com)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주 무보험자 벌금면제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